

KMI 주간해운시장 포커스

발 간 일 2022년 07월 18일
감 수 고병욱 해운연구본부장

발 행 인 김종덕 원장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주간뉴스

01

건화물선

04

컨테이너선

15

탱커선

17

중고선

21

주요 해운지표

24

건화물선

지난주 케이프선 운임은 20,442달러/일 기록,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재개 검토

컨테이너선

지난주 '컨' 운임지수(SCFI)는 지난주 대비 69.17p 하락한 4,074.7을 기록하여 5주 연속 하락함

탱커선

유조선 운임지수(WS)는 전주 대비 2.0p 상승한 58.1 기록, 성수기 도래로 인한 중국 원유 수요 증가로 해상물동량 회복세

윤재웅 해운빅데이터연구 센터장 / jwoong01@kmi.re.kr | 051-797-4633

황수진 전문연구원 / zin@kmi.re.kr | 051-797-4635

류희영 연구원 / hyryu@kmi.re.kr | 051-797-4915

최건우 부연구위원 / ak8102@kmi.re.kr | 051-797-4638

이상혁 전문연구원 / sanghyeoke@kmi.re.kr | 051-797-4625

김병주 연구원 / bjkim17@kmi.re.kr | 051-797-4628



1. 주간뉴스

전자선하증권(eBL) 표준화에 대한 노력

- ▶ 최근 디지털 컨테이너 운송협회(DCSA, Digital Container Shipping Association)는 전자선하증권에 대한 두 번째 개념실증(PoC, Proof of Concept)을 실시함
 - 2020년부터 전자선하증권(eBL)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개념 실증은 전자선하증권 솔루션 4개 업체와 7개 선사가 참여하여 올해 5월에 완료함
 - 두 번째 개념실증이 완료된 이후 표준화된 전자선하증권 1.0 버전이 출시될 예정임
- ▶ 전자선하증권이 표준화될 경우 플랫폼 간 호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무역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됨
 - 디지털 컨테이너 운송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전자선하증권의 보급률은 1.2% 미만에 불과함
 - 표준화된 전자문서가 보급될 경우 범용성이 강화로 글로벌 무역에서 효율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과 결합될 경우 신뢰성까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자료: <https://lloyd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41575/Interoperable-electronic-bill-of-lading-takes-a-step-forward>

최건우 부연구위원

051-797-4638, ak8102@kmi.re.kr

유럽 주요 항만, 러-우 전쟁 및 항만 혼잡 등으로 '컨' 물동량 감소

- ▶ 최근 발표된 유럽 주요 항만들의 상반기 컨테이너 물동량 리포트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항만 혼잡 등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벨기에 앤트워프항의 올해 1-6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동기대비 6.2% 감소한 670만 TEU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제재로 인해 러시아 관련 컨테이너 물동량이 3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 발렌시아항에서는 항만 혼잡으로 인한 환적 화물의 우회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감소함
 - 발렌시아항의 올해 1-6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수출입 화물이 9%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적 화물이 11.5% 감소하면서 전년동기대비 6.4% 감소한 260만 TEU를 기록함
 - 발렌시아 항만청에 따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및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컨테이너 물동량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파악된다고 언급함

자료: <https://lloyd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41610/European-ports-facing-multiple-challenges>

김병주 연구원

051-797-4628, bjkim17@kmi.re.kr



1. 주간뉴스

EU 러시아 대신 대서양 연안 국가를 석탄 수입 대체국으로

- ▶ 유럽 연합은 다음 달 10일부터 발효되는 러시아 무역 금지 조치에 따라 대서양 연안의 국가들로부터 석탄을 수입할 예정임.
 - 이에 따라 미국 및 콜롬비아산 석탄 수입이 급증할 것이라 예상되며, 이외의 부족한 양을 캐나다로부터 수입할 것으로 보임
 - 대서양 연안 수입 운임은 인도네시아, 호주,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부터 석탄을 수입하는 것보다 경제적이고 특히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기차를 이용한 석탄의 수출량이 증가할 여력이 없음
 - 독일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부족한 석탄을 충당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산 석탄을 수입하려 함. 다만 인도네시아나 호주는 전통적으로 아시아 수입업자들에게 석탄을 수출해 왔기에, 유럽 수입업자들에게 합리적인 운임을 제시하기 쉽지 않음
- ▶ 싱가포르 선박중개업체인 반체로코스타(Banchero Cost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유럽 연합의 석탄 수입량 순위는 미국,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각각 두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를 차지함
 - 올해 상반기 유럽 연합의 총 석탄 수입량은 5,760만 톤이며, 이 중 31.6%인 1,820만 톤이 러시아로부터 수입되며, 러시아는 대유럽 최대 석탄 수출국이나 전년 대비 0.2% 차이로 소폭 상승함
 - 미국, 콜롬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경우 각각 1,120만, 730만, 320만 톤을 수출했으며 석탄 수입량 비중의 19.4%, 12.7% 5.6%를 차지함. 이는 전년 대비 91.6%, 113.6%, 764.4% 상승한 수치임

자료: <https://loyd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41620/EU-looks-to-Atlantic-Basin-to-replace-banned-Russian-coal-supplies>

이상혁 전문연구원

051-797-4625 sanghyeoke@kmi.re.kr

우크라이나 해상 무역로 확보를 위한 미국, 터르키예, 러시아 합의 임박. 곡물 수출에 청신호

- ▶ 유엔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흐스(Antonio Guterres)에 따르면 7월 13일 우크라이나, 미국, 터르키예가 참여한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선적한 선박의 안전을 보장에 관한 정치적 합의가 일부 있었다고 밝힘
 - 우크라이나 선박들이 안전이 확보된 수역에 드나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그리고 러시아 무기 밀매를 막기 위한 선박 조사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 우크라이나는 곡물 운반선 및 선적 항만에 대한 공습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러시아의 약속을 요구했으며, 러시아는 이에 대해 보험, 물류, 운송, 은행 서비스에 관한 재제 해제를 요구함
 - 현재 러시아 점유하고 있는 마리우폴(Mariupol) 항만이 수출입 재개를 위해 준비 중임. 항만의 크레인도 다시 작동 중이며, 크레인이 있는 바지선이 공습 후 남은 잔해를 정리하고 있음
- ▶ 지난 달 우크라이나의 주요 세 항만인 이즈마일(Izmail), 레니(Reni), 킬리야(Kiliya)로부터 총 279척의 상선이 출항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보다 23척이 증가한 수치임
 - 로이드 리스트 인텔리전스(Lloyd's list intelligence)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후 이즈마일, 레니, 킬리야의 세 항만에서 건화물선 및 일반화물선의 출항 선박 수는 침공 이전보다 95% 감소했음

자료: <https://www.hellenicshippingnews.com/heavy-rains-and-floods-in-new-south-wales-severely-limit-loading-operations-at-newcastle-port/>

이상혁 전문연구원

051-797-4625 sanghyeoke@kmi.re.kr



1. 주간뉴스

사우디아라비아, 2분기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 전년 대비 2배 증가

- ▶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 사우디아라비아의 2분기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이 전년 대비 약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글로벌 제재로 원유 수출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주로 인도, 중국, 중동 등에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원유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
 - 원유 정보 제공업체 리피니티브 아이콘의 데이터에 의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 2분기 에스토니아 항을 통해 러시아산 원유 64만 7천 톤을 수입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32만 톤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양임
- ▶ 사우디아라비아는 올해 2분기 자국산 원유 정제량을 줄이는 대신 러시아산 원유 수입분을 증량시켜왔으며, 이는 하절기 냉방 수요 충족과 자국산 수출분 확보를 위한 것으로 파악됨
 - 사우디아라비아는 수년 전부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해 자국 전력 수요에 사용하고 이렇게 절감한 자국산 원유를 국제시장에서 더 높은 가격에 수출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7년 정제능력을 보강하면서 일일 290만 배럴에서 360만 배럴로 생산량을 확대했지만, 올 2분기 정제능력 사용률은 70~73%에 그치고 있음

자료: <https://www.reuters.com/business/energy/exclusive-saudi-arabia-doubles-q2-russian-fuel-oil-imports-power-generation-2022-07-14/>

류희영 연구원

051-797-4634, hyryu@kmi.re.kr

유럽 유조선사들, 대러 제재 시행 전 경쟁적으로 러시아산 원유 수송 나서

- ▶ 유럽의 유조선사들이 연말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 시행을 앞두고 러시아산 원유를 중국, 인도 등으로 활발히 수송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에너지 정보 제공업체 보르텍사에 의하면 6월 하루 평균 약 113만 배럴의 러시아산 원유가 중국에 수입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2월 하루 평균 67만 배럴에서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양임
 - 인도 역시 올해 1~2월만 해도 러시아산 원유를 거의 수입하지 않았으나, 지난달 하루 약 100만 배럴의 러시아 원유를 수입한 것으로 분석됨
- ▶ 이같이 유럽 유조선사들이 오는 12월 5일 EU의 러시아산 원유 금수조치 시행 전 가능한 많은 양의 러시아산 원유를 선적하는 이유는 제재 발효 도래 전 충분한 물량을 수출하여 수익을 확보하기 위함임
 - EU는 지난 5월 30일 6차 대러 제재안의 일환으로 올 연말까지 유조선선을 통한 러시아산 원유의 수입 중단을 합의한 바 있으며, EU가 수입하는 원유 중 약 36%가 러시아산으로 이 중 90%가 선박을 통해 운송됨
 - 그러나 EU의 금수 조치 시행에도 불구하고 중국, 인도 등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국가들로 러시아산 원유 수출이 증가하면서 제재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실정임

자료: <https://www.wsj.com/articles/eu-shipowners-race-to-move-russian-oil-before-sanctions-kick-in-11658055600>

류희영 연구원

051-797-4634, hyryu@kmi.re.kr



2. 건화물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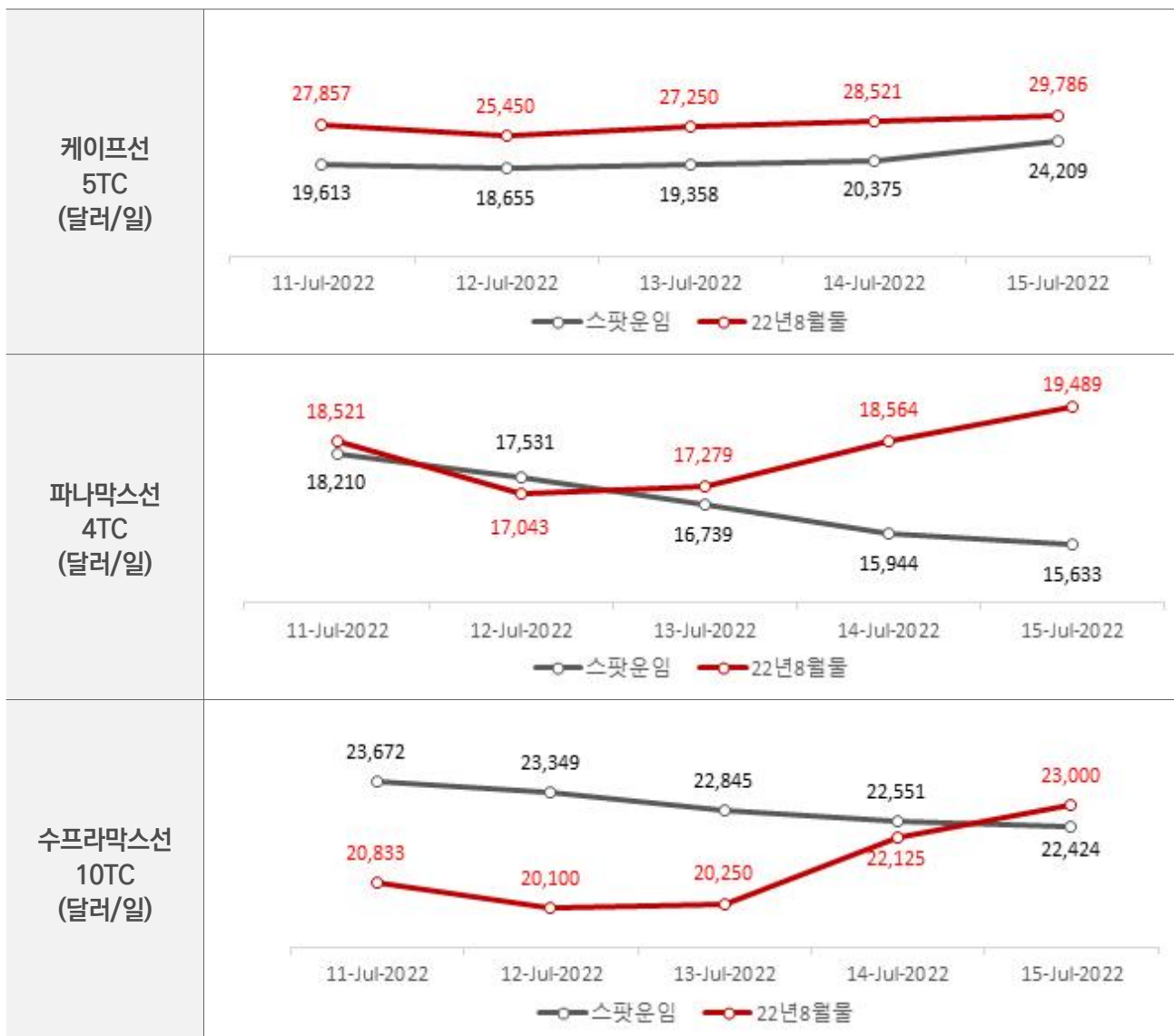
황수진 전문연구원 | zin@kmi.re.kr | 051-797-4635

1 주간평균운임 전망

구분	7월 2주			
	주간평균운임	전주대비차이	FFA 8월물 주간평균가격	전주대비차이
케이프선 5TC (달러/일)	20,442	▲ 2,549	14.2 %	▲ 83 0.3 %
파나마스선 4TC (달러/일)	16,811	▼ -3,046	-15.3 %	▼ -2,128 -10.5 %
수프라막스선 10TC (달러/일)	22,968	▼ -1,584	-6.5 %	▼ -1,388 -6.1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KMI

▲ 상승 ▼ 하락 - 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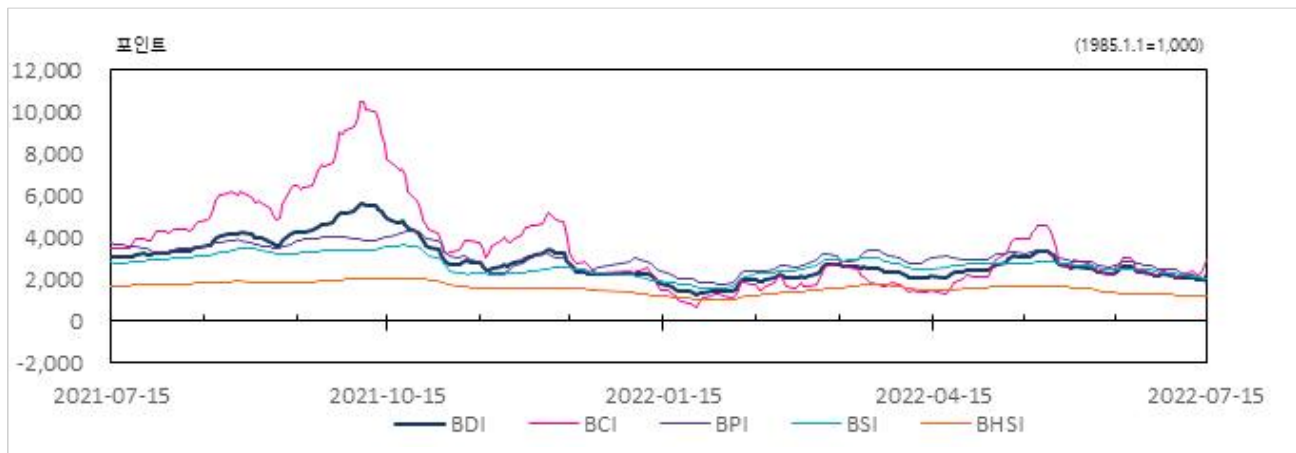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2 시장동향

건화물선 운임지수



자료: Clarkson

건화물선 운임

(운임지수: 포인트, 선형별 운임: 달러/일, 1년 용선료: 달러/일, 선형별 운임 평가치: 달러/일)

		7월 2주	전주대비	2022년			2021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건화물선 시장(현물) ¹⁾									
운임지수	BDI	2,051	-37	1,296	3,369	2,263	1,303	5,650	2,943
선형별 운임	케이프(5TC)	20,442	2,549	5,826	38,169	18,182	10,304	86,953	33,306
	파나막스(4TC)	16,811	-3,046	14,549	29,410	23,132	10,936	37,616	25,547
	수프라막스(10TC)	22,968	-1,584	17,273	33,366	26,729	11,242	39,860	26,758
	핸디(6TC)	21,182	-779	17,776	32,166	25,447	11,695	37,109	25,702
1년 용선료	케이프	23,250	500	13,500	19,750	16,079	10,125	23,000	16,682
	파나막스	18,750	-1,500	11,200	14,125	12,653	9,625	16,125	12,535
	수프라막스	17,625	-375	9,500	10,625	10,280	8,250	12,500	10,340
	핸디	17,500	0	8,063	9,063	8,586	7,313	9,250	8,421
건화물선 시장(FFA)									
		2022년 8월물		2022년 4분기물		2022년물		2023년물	
		7월 2주	전주대비	7월 2주	전주대비	7월 2주	전주대비	7월 2주	전주대비
선형별 운임 평가치	케이프(5TC)	27,773	83	26,500	8	18,550	-31	16,860	-9
	파나막스(4TC)	18,179	-2,128	18,377	-766	13,740	-340	13,740	-340
	수프라막스(10TC)	21,262	-1,388	18,649	-591	14,250	-550	12,647	3
	핸디(6TC)	20,426	-1,809	17,688	-1,185	13,523	-670	11,998	-160

주: 운임지수, 선형별 운임, 1년 용선료는 해당 주의 평균값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2 시장동향

원자재 가격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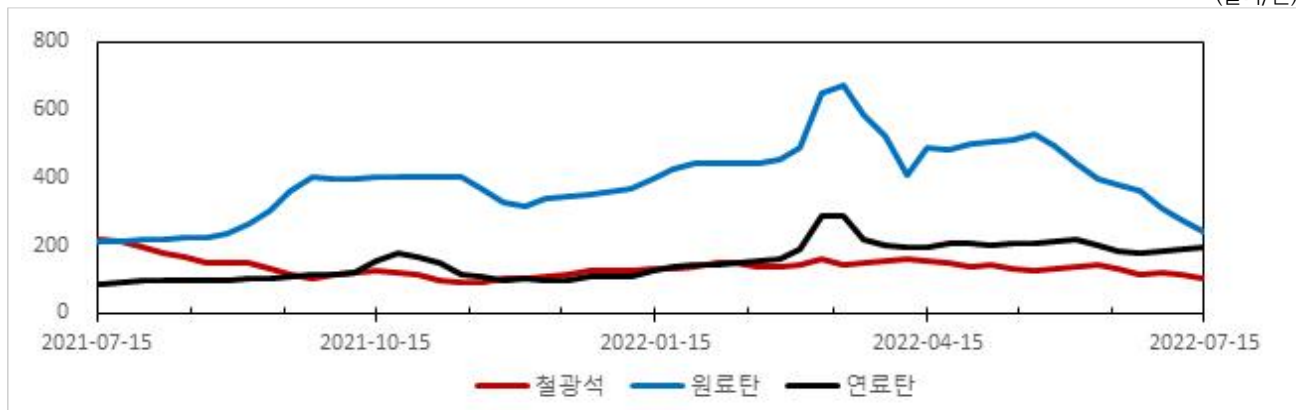
구분	2022년						2021년			
	7월 2주	7월 1주	전주대비차이				7월 2주	연평균	최저	최고
철광석	104.7	112.2	▼	-7.5	-6.7	%	219.9	161.1	89.8	226.5
원료탄	240.5	274.2	▼	-33.7	-12.3	%	202.6	220.5	102.2	403.0
연료탄	195.5	186.8	▲	8.7	4.7	%	83.1	84.3	52.0	175.4
대두	570.2	585.8	▼	-15.5	-2.7	%	487.8	500.6	444.3	589.0
옥수수	272.7	295.8	▼	-23.1	-7.8	%	212.7	224.2	185.1	278.4

자료: Clarkson,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 상승 ▼ 하락 - 혼조

철광석 및 석탄 가격 추세(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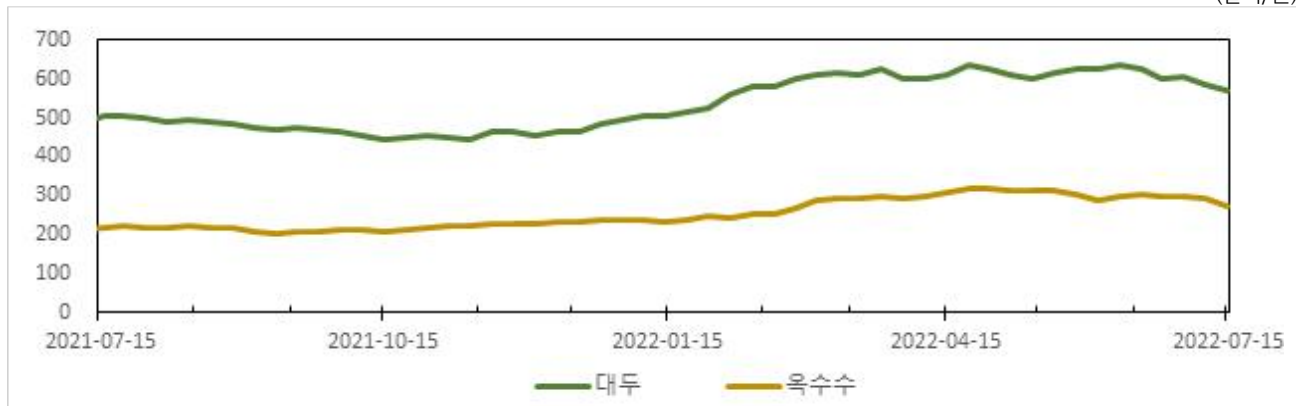
(달러/톤)



자료: Clarkson

곡물가격 추세(주간)

(달러/톤)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3 케이프선-동향분석

■ 케이프선 : 지난 주(7월 1주) 대비 14.2% 상승한 20,442달러/일 기록

(운임) 케이프선 운임이 소폭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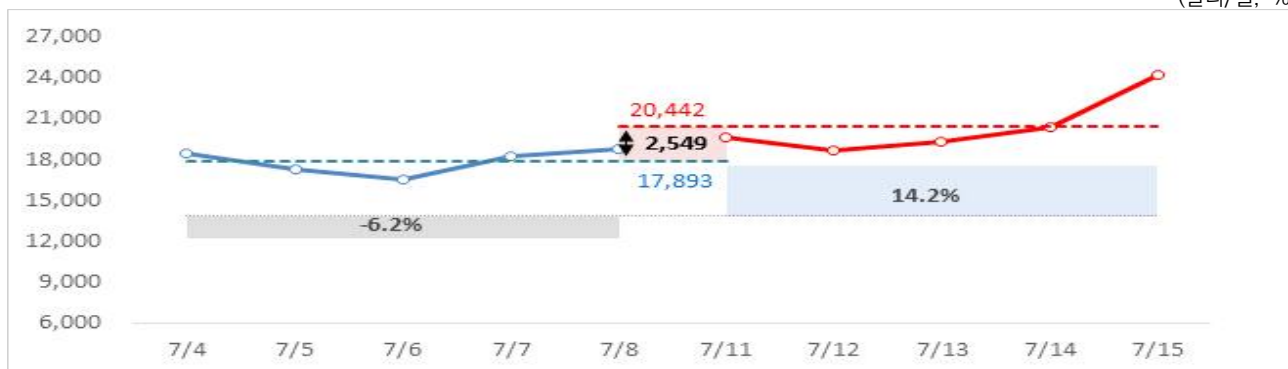
- 시장에 철광석 등 신규 화물 유입이 증가한 반면 선박은 공급 부족으로 운임이 상승함

(동향)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재개 검토

- 중국 정부가 2년에 걸쳐 금지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임. 호주의 정권 교체를 계기로 양국 외교관계가 다소 회복되었으며, 특히 유럽연합이 8월부터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만큼, 석탄 공급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임
-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나, 유럽연합이 8월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만큼 중국의 주요 석탄 공급지인 인도네시아산 석탄에 대한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예상임
- 또한 중국이 호주산 수입을 금지한 것이 톤-마일 증가로 이어졌었던 만큼,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재개가 운임에 긍정적일지는 주시해야 한다는 의견임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달러/일, %)



자료: Clarkson

케이프선 운임

(BC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7월 2주	7월 1주	전주대비차이	
BCI	2,465	2,157	▲ 307	14.2%
스팟운임(5TC)	20,442	17,893	▲ 2,549	14.2%
용선료	6개월	31,750	▲ 1,000	3.3%
	1년	23,250	▲ 500	2.2%
	5년	18,750	▲ 250	1.4%
FFA	8월물	27,773	▲ 83	0.3%
	4분기	26,500	▲ 8	0.0%
	22년	18,550	▼ -31	-0.2%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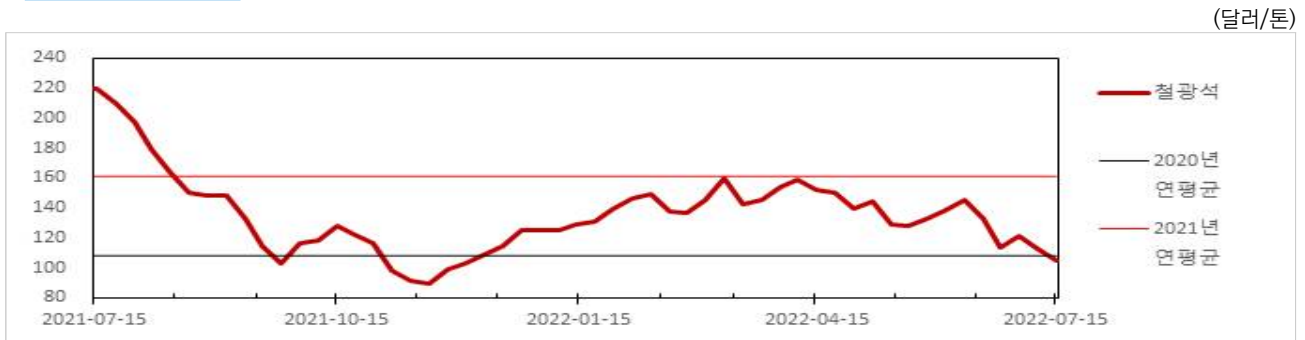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3 케이프선-동향분석

■ 철광석 가격 : 지난 주 대비 6.7% 하락한 104.7달러/톤 기록

철광석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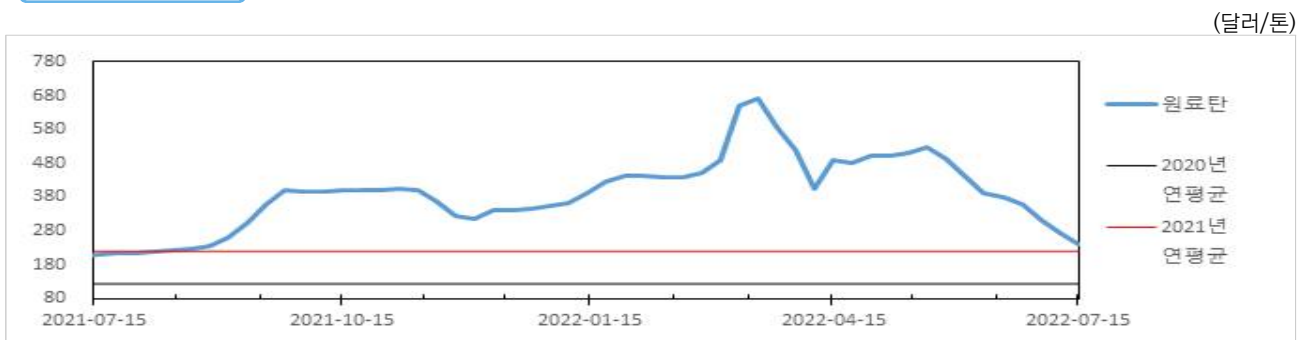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자료: Clarkson

■ 원료탄 가격 : 지난 주 대비 12.3% 하락한 240.5달러/톤 기록

원료탄 가격 추이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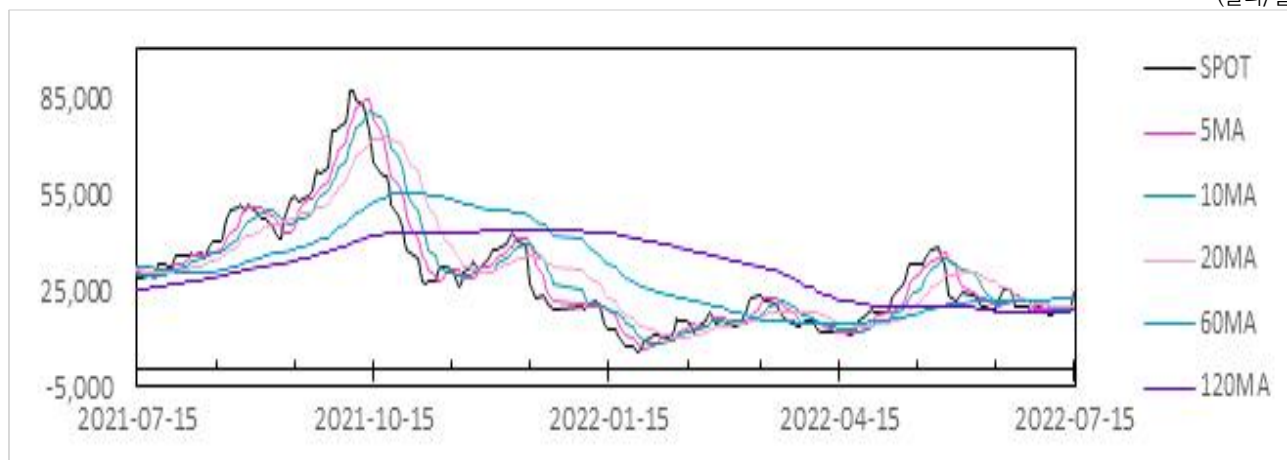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3 케이프선-기술분석

이동평균

(달러/일)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3 파나막스선-동향분석

■ 파나막스선 : 지난 주 대비 15.3% 하락한 16,811달러/일 기록

(운임) 파나막스선 운임은 하락세를 기록 중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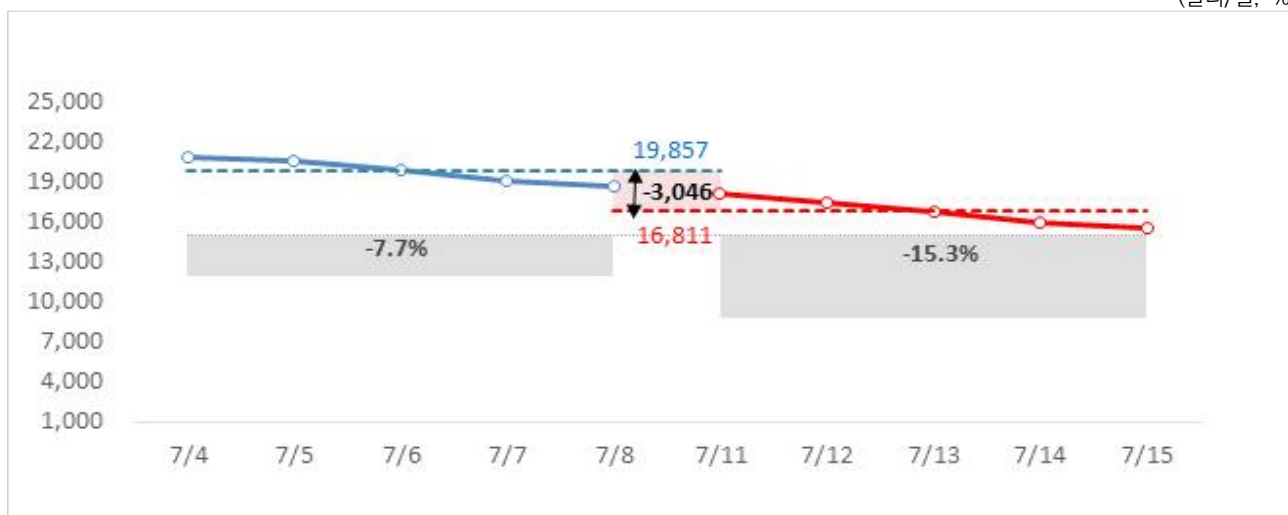
- 시장 상승을 주도하던 곡물 유입이 둔화하면서 운임이 하락함

(동향) 우크라이나 밀 수출 재개 조짐

- 13일 로이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재개에 대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국 간 협정이 체결될 가능성이 큼. 이번 협정 내용은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흑해를 통해 안전하게 수출될 수 있도록 항로를 정상화하고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함께 센터를 설립한다는 내용임
-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시즌이 3분기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협정이 운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임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달러/일, %)



자료: Clarkson

파나막스선 운임

(BP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7월 2주	7월 1주	전주대비차이		
BPI	2,016	2,355	▼	-339	-14.4 %
스팟운임(4TC)	16,811	19,857	▼	-3,046	-15.3 %
용선료	6개월	21,875	▼	-1,375	-5.9 %
	1년	18,750	▼	-1,500	-7.4 %
	5년	15,125	▼	-250	-1.6 %
FFA	8월물	18,179	▼	-2,128	-10.5 %
	4분기	18,377	▼	-766	-4.0 %
	22년	13,740	▼	-340	-2.4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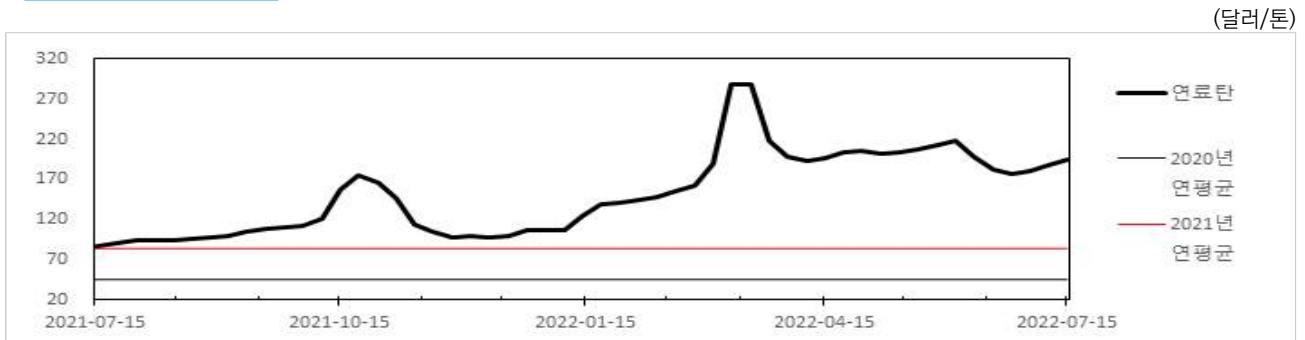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3 파나막스선-동향분석

연료탄 가격 : 지난 주 대비 4.7% 상승한 195.5달러/톤 기록

연료탄 가격 추이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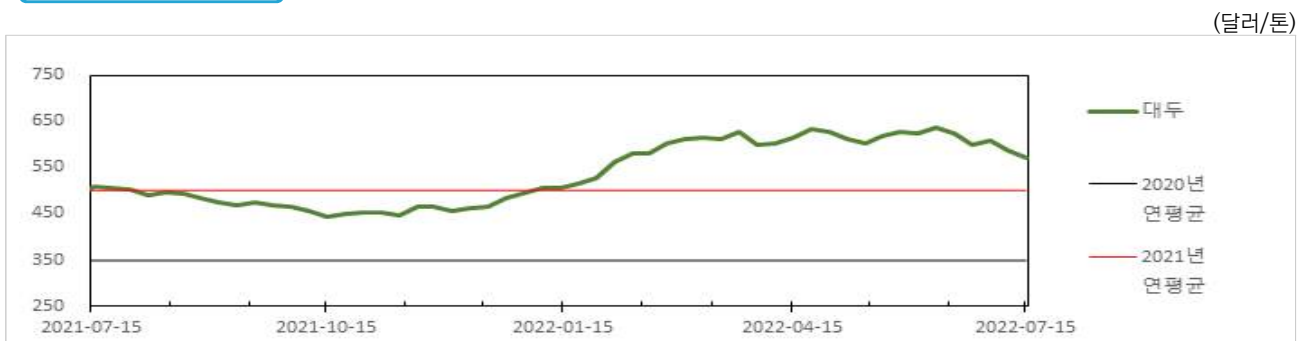
(달러/톤)

구분	연료탄가격	전주대비차이		
6월 4주	177.4	▼ -4.2	-2.3	%
6월 5주	180.2	▲ 2.8	1.6	%
7월 1주	186.8	▲ 6.6	3.6	%
7월 2주	195.5	▲ 8.7	4.7	%

자료: Clarkson

대두 가격 : 지난 주 대비 6.2% 하락한 570.2달러/톤 기록

대두 가격 추이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달러/톤)

구분	대두 가격	전주대비차이		
6월 4주	625.5	▼ -12.5	-2.0	%
6월 5주	600.5	▼ -24.9	-4.0	%
7월 1주	607.7	▲ 7.2	1.2	%
7월 2주	570.2	▼ -37.5	-6.2	%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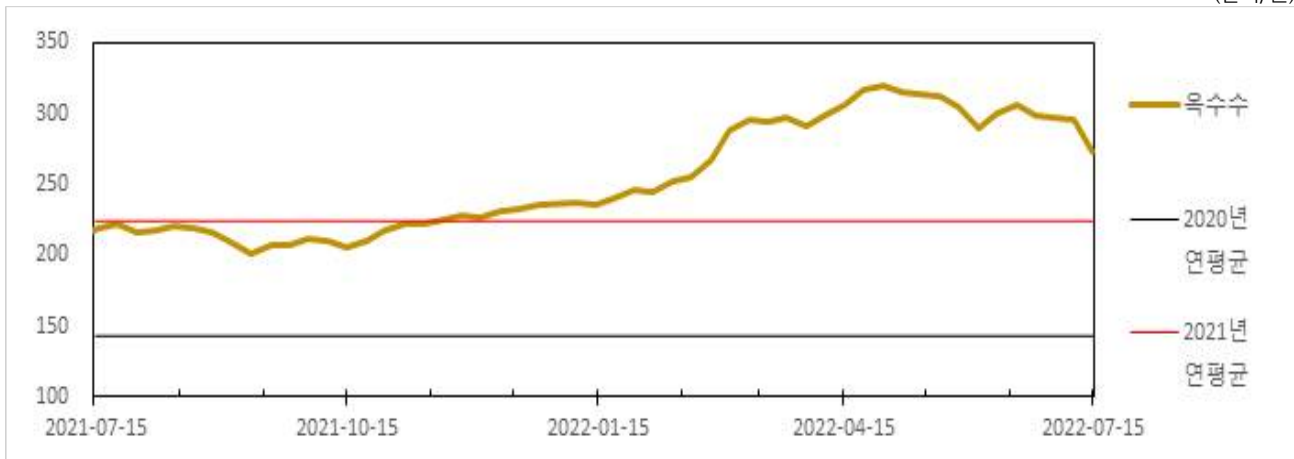


3 파나마스선-동향분석

■ 옥수수 가격 : 지난 주 대비 8.2% 하락한 272.7달러/톤 기록

옥수수 가격 추이

(달러/톤)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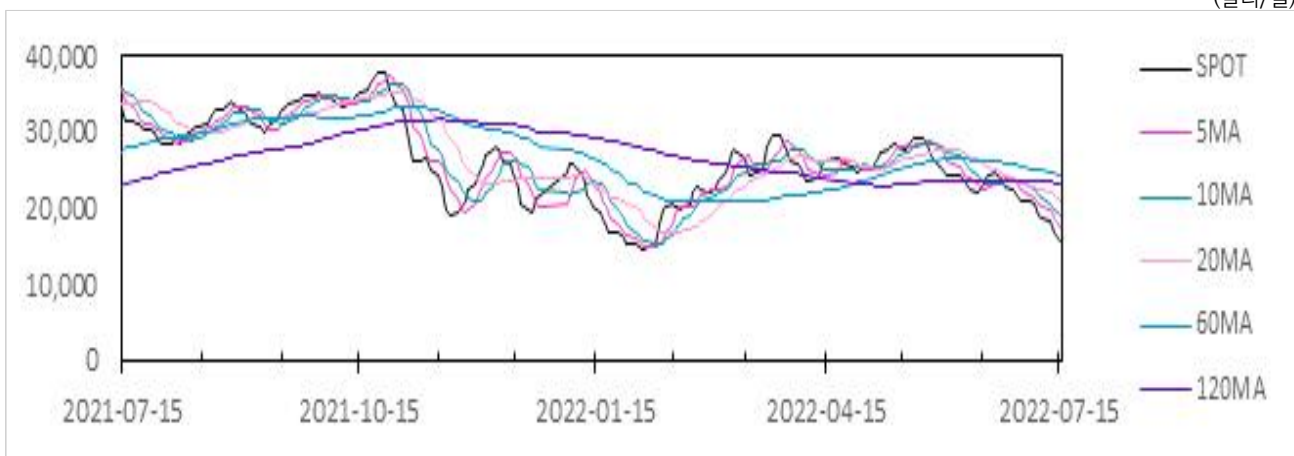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구분	옥수수 가격	전주대비차이		
6월 4주	305.8	▲ 5.8	1.9	%
6월 5주	297.8	▼ -8.0	-2.6	%
7월 1주	297.0	▼ -0.8	-0.3	%
7월 2주	272.7	▼ -24.3	-8.2	%

3 파나마스선-기술분석

이동평균

(달러/일)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3 수프라막스선-동향분석

■ 수프라막스선 : 지난 주 대비 6.5% 하락한 22,968달러/일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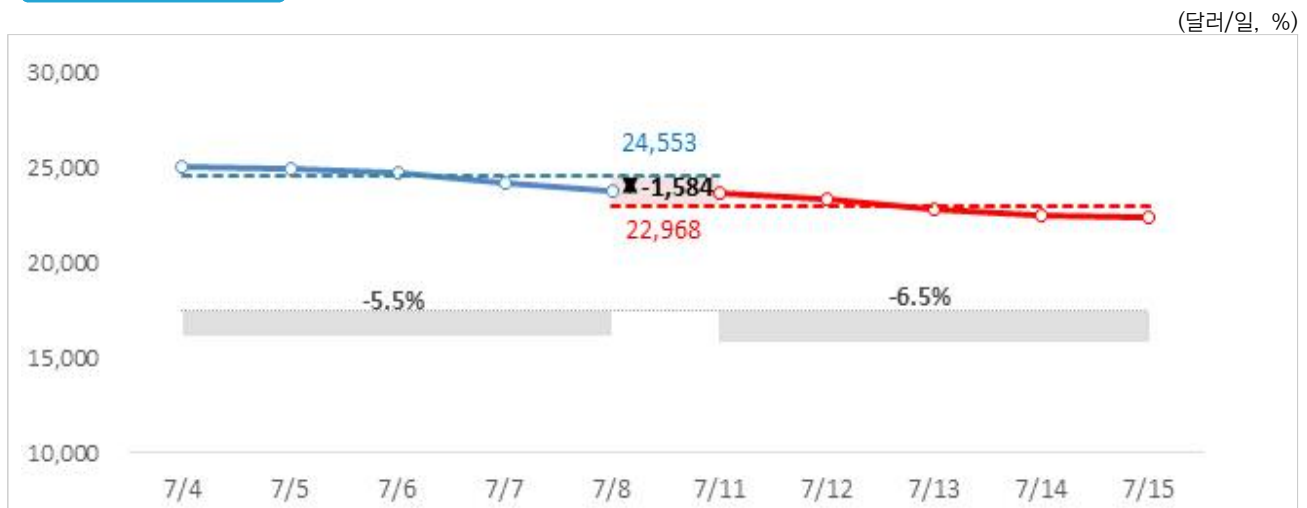
(운임) 수프라막스선 운임이 하락세를 보임

- 폭우 등 기상악화가 신규 화물의 시장 유입을 제한하고 있어 운임이 하락함

(동향) 폭우에 호주 뉴캐슬항 범람

- 폭우로 호주의 내륙 운송의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일부 항의 수리가 진행되면서 호주 뉴캐슬항의 석탄 수출작업이 제한됨. 호주의 주요 석탄 수출항 중 하나인 뉴캐슬항은 주간 평균 320만~350만 톤의 석탄을 수출하나, 이번 폭우로 동향에서 처리된 석탄량은 주간 평균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100만 톤을 조금 웃도는 수준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에 러시아산 석탄에 대한 유럽의 의존도가 줄어들면서 호주산 석탄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증가했으며, 1-6월 6개월 동안 총 7,260만 톤(약 823척)의 석탄이 처리됨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자료: Clarkson

수프라막스선 운임

(BS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7월 2주	7월 1주	전주대비차이		
BSI	2,088	2,232	▼ -144	-6.4	%
스팟운임(10TC)	22,968	24,553	▼ -1,584	-6.5	%
용선료	6개월	20,750	▼ -2,500	-10.8	%
	1년	17,625	▼ -375	-2.1	%
	5년	11,000	-	-	%
FFA	8월물	21,262	▼ -1,388	-6.1	%
	4분기	18,649	▼ -591	-3.1	%
	22년	14,250	▼ -550	-3.7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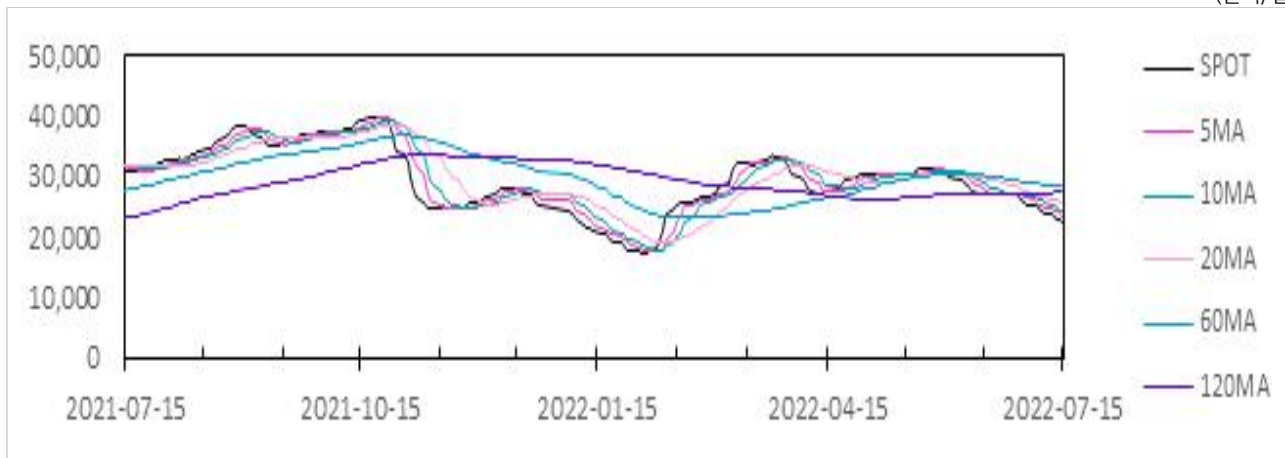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3 수프라막스선-기술분석

이동평균

(달러/일)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3. 컨테이너선

최건우 부연구위원 | ak8102@kmi.re.kr | 051-797-4638

1 동향분석

I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 지난주 대비 69.17p 하락한 4,074.7을 기록

(운임) 컨테이너 운임 하락세 지속

- 남미를 제외한 모든 원양항로에서 운임 하락이 지속되어 컨테이너운임지수는 5주 연속 하락함

(현황) 컨테이너 시장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 지속

- 5월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월대비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2.8% 감소함. 하지만 항로별로 차이가 있는데 북미 서부는 전년대비 감소한데 반해 동부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CTS)
- 인플레이션 등 대외환경 악화로 수요 증가세 둔화와 함께 유럽의 항만 파업, 미국 철도 혼잡 등 공급부문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어 하반기 컨테이너 시장의 불확실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컨테이너 운임지수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컨테이너 운임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한국, 일본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7월 3주	전주대비	2022년			2021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컨테이너선 시장									
종합운임지수	SCFI	4,074	-69.2	4,074	5,109	4,463	2,570	4,956	3,769
운임	유럽항로	5,612	-85.0	5,612	7,797	6,883	3,651	7,714	6,078
	미서안항로	6,883	-233.0	6,883	8,117	7,804	3,931	7,444	5,317
	미동안항로	9,534	-68.0	9,602	11,833	10,564	4,679	11,976	8,353
	한국항로	358	-4.0	325	456	365	184	386	286
	일본항로	347	0	276	362	324	251	340	285
	동남아항로	1,054	-6.0	992	1,537	1,160	840	1,494	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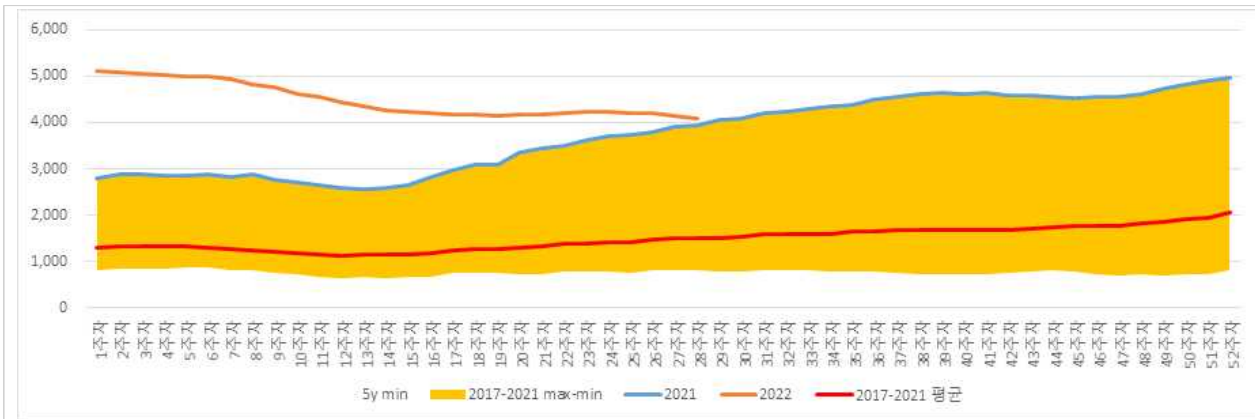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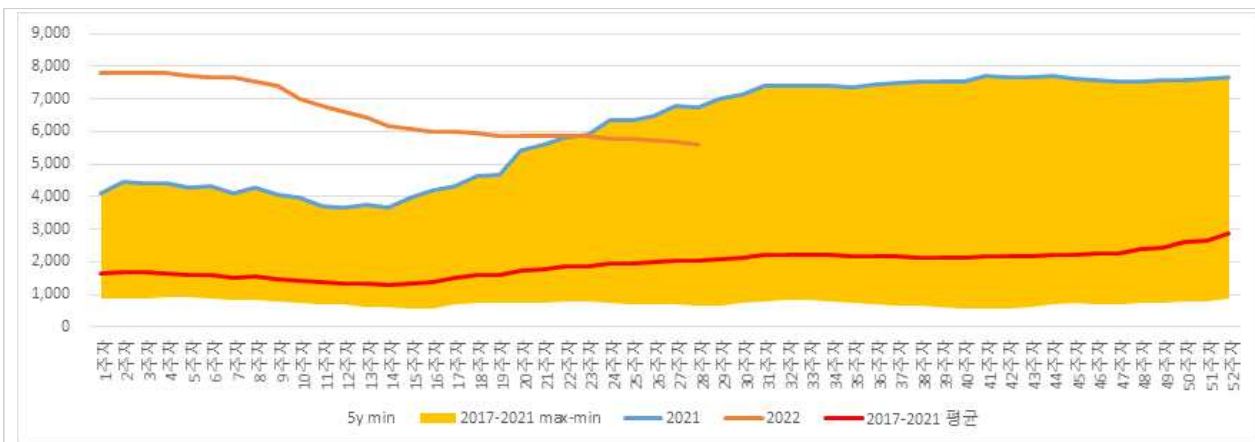
2 운임전망

| 7월 3주('22.7.18~'22.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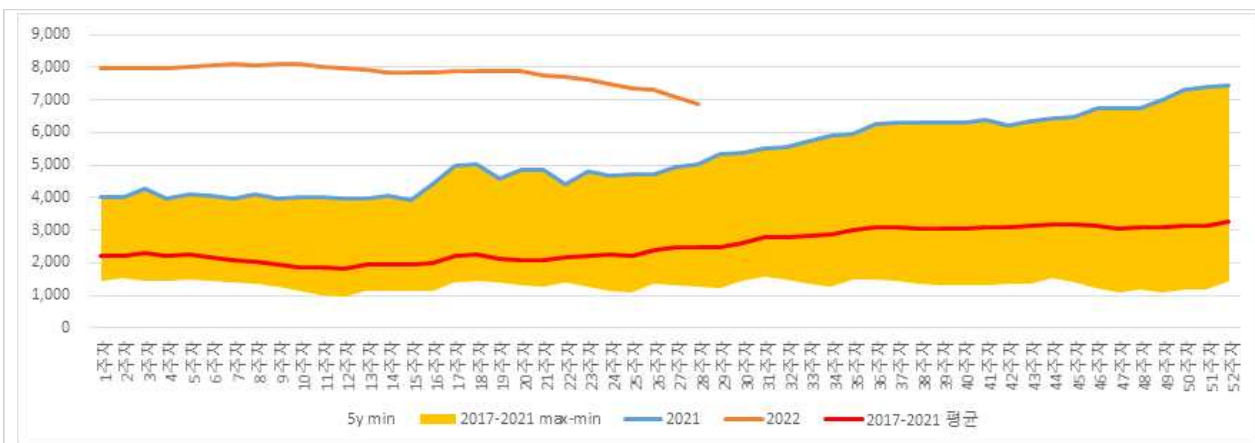
SCFI 지수는 약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유럽운임은 약보합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북미운임(서부)은 약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4. 탱커선

류희영 연구원 | hyryu@kmi.re.kr | 051-797-4643

1 유조선-동향분석

I 유조선 WS(VLCC World Scale) : 전주(7월 1주) 대비 2.0p 상승한 58.1 기록

(운임) 전주 대비 대부분의 항로에서 운임지수(WS)가 상승세를 보임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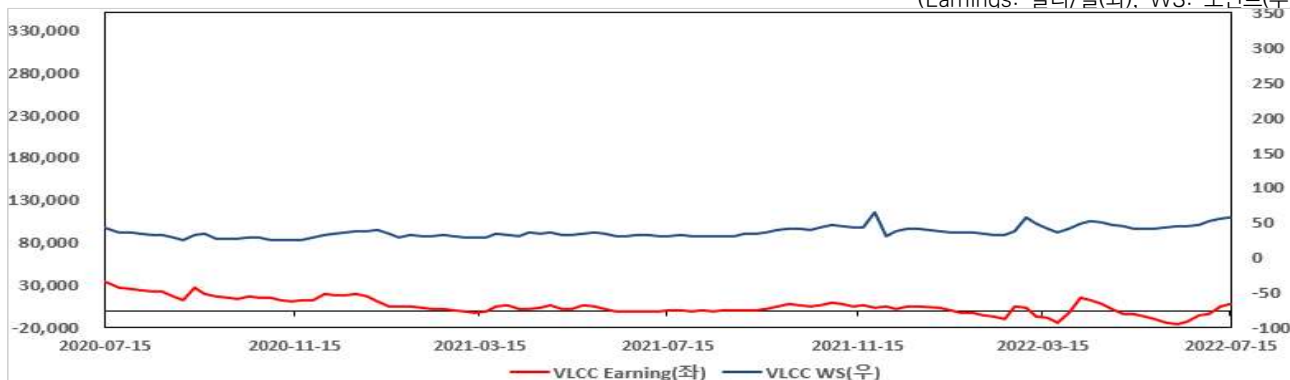
구분	7월 2주(WS)	전주 대비 차이		
중동-중국 항로(TD3C)	56.1	▲	2.0	3.6 %
Ras Tanura(중동) - Loop(미 걸프만) VLCC 280K	35.0	▲	1.5	4.5 %
Ras Tanura(중동) - Ningbo(중국) VLCC 270K	59.0	▲	3.0	4.0 %
Bonny Off(서아프리카) - Ningbo(중국) VLCC 260K	58.5	▲	1.0	1.7 %

(동향) 드라이빙 시즌에 따른 수요가 지속되며 유조선 시장 상승세

- 최대 원유소비국인 중국은 지속되는 폭염에 의한 에너지 소비 증가, 휴가철 도래에 따른 인적·물적 자원 이동 확대로 연료유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원유 수입량이 증가했으며, 증산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되며 시장이 상승함
 - 현재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유가 안정화 방안 모색을 통한 인플레이션 완화를 위해 7월 14일-16일 주요 산유국 정상들과 걸프협력회의(GCC)+3*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원유 증산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결과가 오는 8월 3일 개최되는 제31차 OPEC+ 회의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유시장의 귀추가 주목되는 시점임
- * 걸프협력회의(GCC)+3 : 사우디아라비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카타르·오만·바레인 등 중동의 걸프만 6개국이 역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성한 지역협력기구+이집트·이라크·요르단 3개국

VLCC 중동-중국(TD3C) 운임 및 지수 :

(Earnings: 달러/일(좌), WS: 포인트(우))



유조선 운임

(운임지수: WS, 수익과 용선료: 달러/일)

		7월 2주	전주대비	2022년			2021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유조선 시장(현물)									
중동-중국	운임지수	58.1	2.0	32.1	58.1	44.0	28.4	65.1	35.4
항로(TD3C)	평균 수익	-773	6,233	-24,517	14,308	-9,000	-6,779	14,966	-526
VLCC	1년 용선료	16,000	-	15,000	19,250	16,643	18,500	24,125	20,851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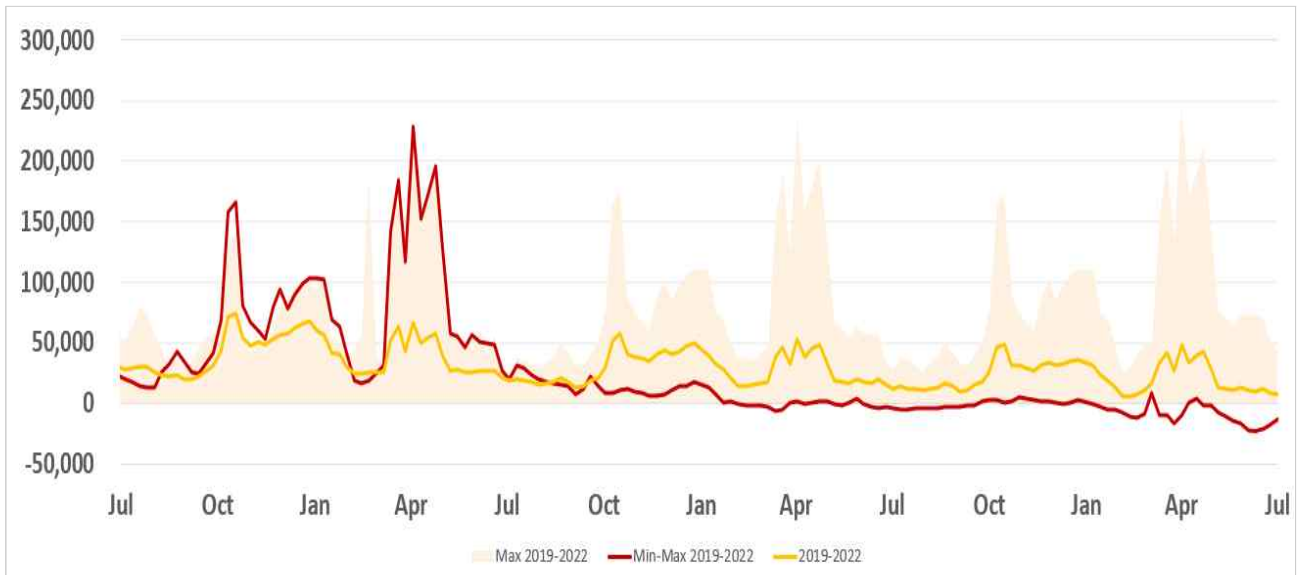


1 유조선-기술분석

수익 추세선(붉은색)은 6월 4주 차 이후부터 상승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며 전주 대비 89% 상승함

VLCC 중동-중국(TD3C) TCE(Time Charter Equivalent)

(달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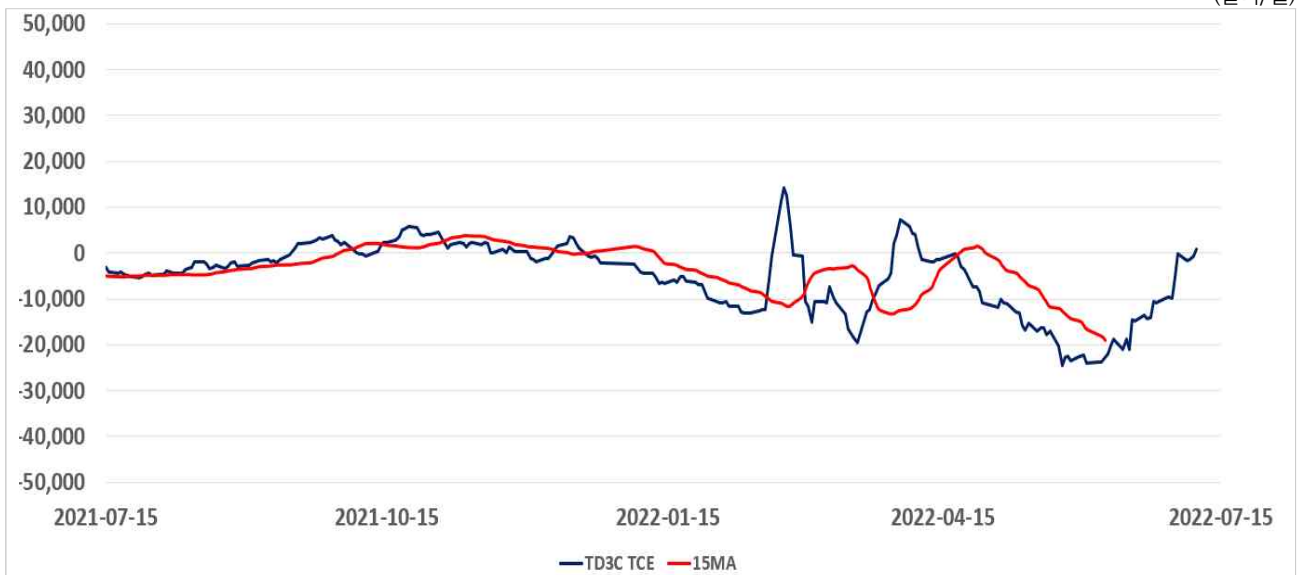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수익 추세선(파란색)은 4월 말 이후 마이너스 추세가 지속되었으나 금주 양전환에 성공함

VLCC 중동-중국(TD3C) 이동평균(MA)

(달러/일)



자료: Clarkson



2 석유제품선-동향분석

I 석유제품선 WS(MR World Scale) : 전주(7월 1주) 대비 9.2p 상승한 389.5 기록

(운임) 전주 대비 대부분의 항로에서 운임지수(WS)가 대부분 보험세를 보임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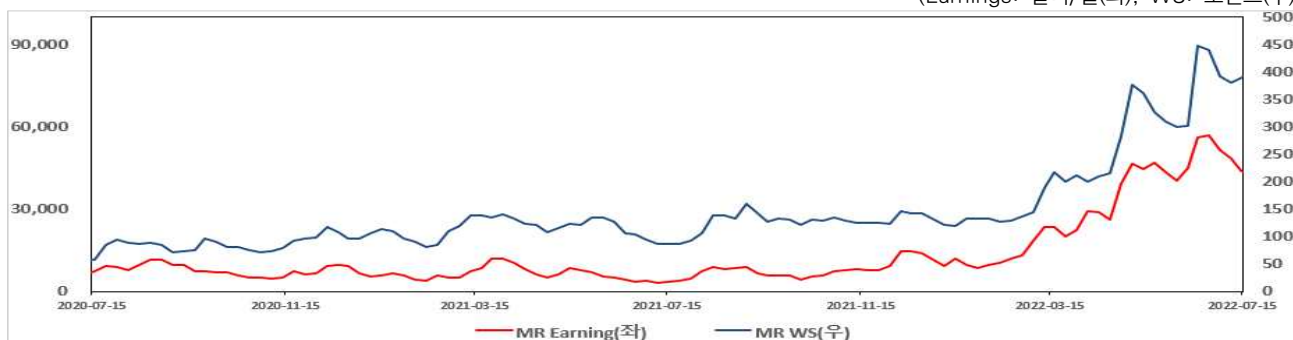
구분	7월 2주(WS)	전주 대비 차이		
인도-극동 항로	389.5	▲	9.2	2.4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75K(LR2형)	205.0	▼	10.0	4.7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55K(LR1형)	290.0	-	-	-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35K(MR1형)	380.0	-	-	- %

(동향) 아시아지역 정제시설 가동을 회복으로 인해 동아시아지역 석유제품 수출 증가

- 정비를 마친 아시아지역 주요 정제시설의 가동률이 회복되기 시작하면서 동아시아지역의 석유제품 수출이 증가세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일부 항로에 소폭 선박 공급 감소 효과가 발생하면서 석유제품선 시황은 보험세를 나타냄
-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 의하면 향후 글로벌 정유사들의 설비 순증설량은 2022년 130만 b/d에서 2025년 10만 b/d로 급감할 것으로 전망됨. 이처럼 석유정제설비 증설이 대폭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하반기에도 공급 부족 여파로 인한 정제마진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휘발유, 경유 등 주요 석유제품이 타이트한 수급 상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석유제품선 운임 및 지수

(Earnings: 달러/일(좌), WS: 포인트(우))



자료: Clarkson

석유제품선 운임

(운임지수: WS, 수익과 용선료: 달러/일)

		7월 2주	전주대비	2022년			2021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제품선 시장(현물)									
인도-극동 항로	운임지수	389.5	9.2	119.8	447.1	252.0	80.6	160.0	120.1
	평균 수익	56,174	3,923	6,216	72,180	28,379	-96	15,345	7,642
MR	1년 용선료	20,000	-500	12,375	20,500	15,746	11,625	13,000	12,429

주: 인도-극동(Pacific Basket) 항로는 4일 평균(월-목) 사용. 전주비도 동일기간 평균 적용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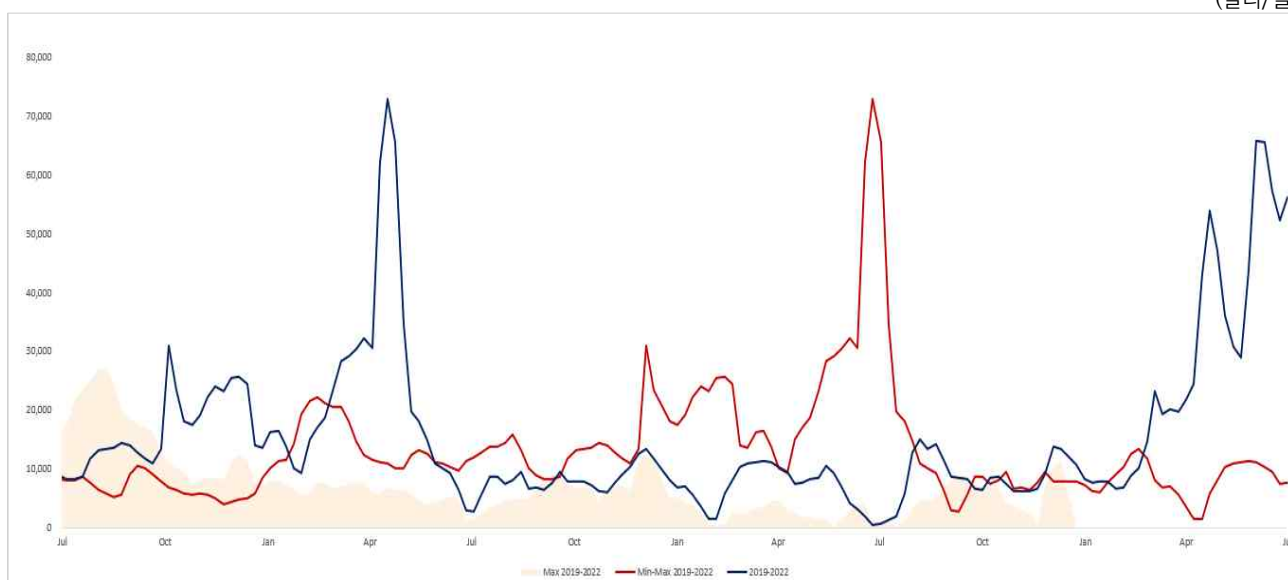


2 석유제품선-기술분석

■ 수익 추세선은 전주 소폭하락 후 금주 7.5% 상승함

MR 인도-극동(Pacific Basket)

(달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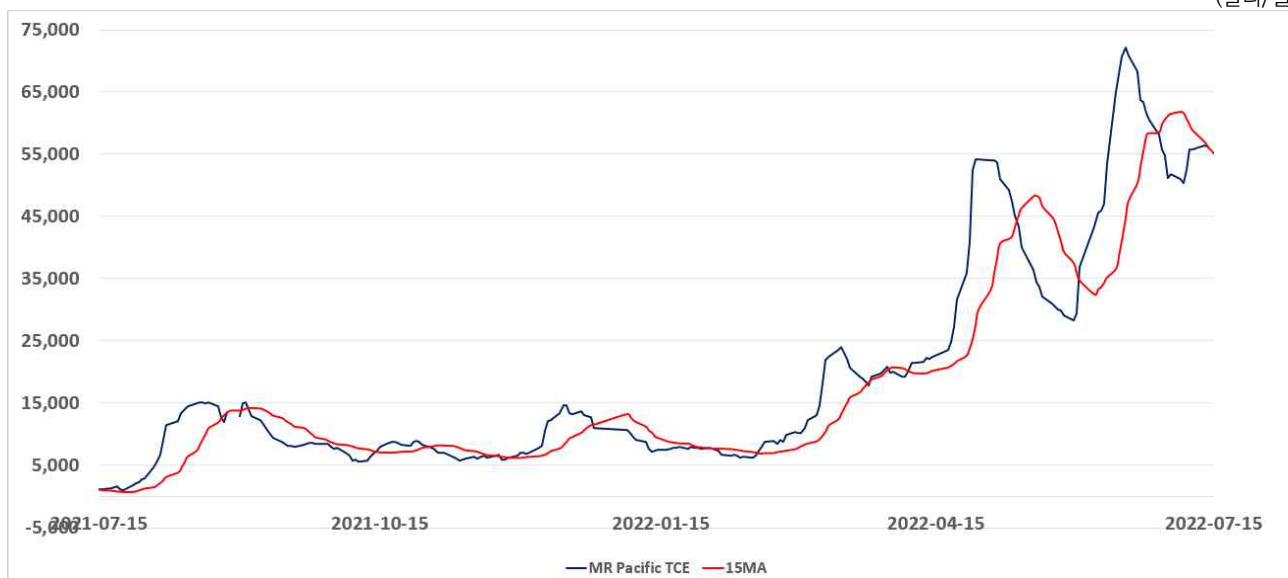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 수익 추세선은 7월 둘째 주 이후 보험세를 나타내고 있음

MR 인도-극동(Pacific Basket) 이동평균(MA)

(달러/일)



자료: Clarkson



5. 중고선

1 동향분석

■ 건화물선 중고선가 지수는 18.4로 전주 대비 0.2포인트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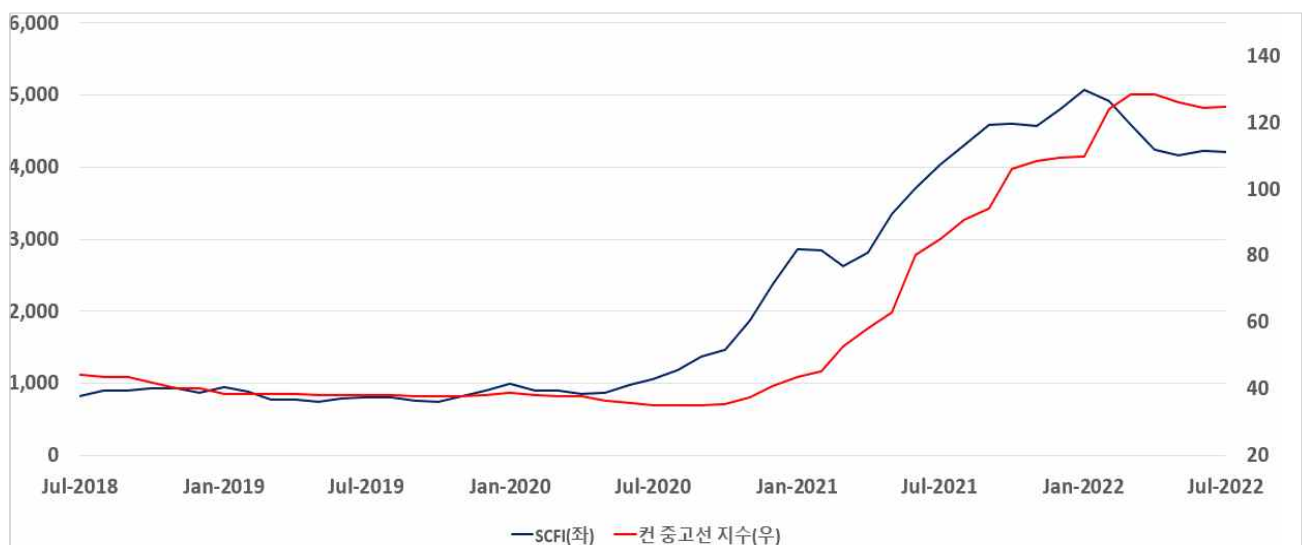
건화물선 운임지수와 중고선 지수



주: 건화물선 중고선지수는 선형별 5년 중고선가를 가중평균하여 계산되었음
자료: Clarkson

■ 컨테이너선 중고선가 지수는 124.44로 전월 대비 0.17포인트 하락함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와 중고선 지수



자료: Clarkson



2 거래실적

| 7월 3주

I 건화물선, 컨테이너선, 탱커선 등 25건의 중고선 거래 발생

선종	선명	건조 년도	선형	단위	매매일자	가격 (백만달러)	매도자	매수자
Bulk	Hui Xin 8	2012	92,974	DWT	2022-07-08	22.00	Hainan Jiatai	Undisclosed interests
Bulk	Venture Ocean*	2015	38,947	DWT	2022-07-08	50.00	HBC Hamburg	Undisclosed interests
Bulk	Venture Team*	2015	38,947	DWT	2022-07-08		HBC Hamburg	Undisclosed interests
Gas C'rier	BW Singapore	2015	170,000	cu.m.	2022-07-07	400.00	BW LNG	Clients of SNAM SpA
Tanker	Matterhorn Spirit	2005	114,834	DWT	2022-07-07	24.75	Teekay Tankers	Undisclosed interests
TankChem	STI Opera*	2014	49,990	DWT	2022-07-07		Huarong Financial	Clients of Scorpio Tankers
TankChem	STI Virtus*	2014	49,990	DWT	2022-07-07		Huarong Financial	Clients of Scorpio Tankers
TankChem	STI Venere*	2014	49,990	DWT	2022-07-07		Huarong Financial	Clients of Scorpio Tankers
TankChem	STI Aqua*	2014	49,990	DWT	2022-07-07		Huarong Financial	Clients of Scorpio Tankers
TankChem	STI Dama*	2014	50,137	DWT	2022-07-07		Huarong Financial	Clients of Scorpio Tankers
TankChem	STI Regina*	2014	49,990	DWT	2022-07-07		Huarong Financial	Clients of Scorpio Tankers
Bulk	Interlink Eternity	2019	39,094	DWT	2022-07-06	29.60	Interlink Ltd	Undisclosed interests
Bulk	Christina IV	2000	72,493	DWT	2022-07-05	13.00	Modion Maritime SA	Middle Eastern interests
Tanker	Kronviken	2006	113,500	DWT	2022-07-05	25.50	Viken Shipping	Undisclosed interests
Bulk	Mega Maggie	2009	31,922	DWT	2022-07-05	17.50	Taylor Maritime Inv	Undisclosed interests
Bulk	Yong Tai 1111	2011	10,863	DWT	2022-07-05		Yongtai Shipping	Chinese interests
Container	Northern Jupiter	2010	8,814	TEU	2022-07-04	130.00	Northern Shipping	Clients of Maersk
Bulk	Golden Bonnie	2009	32,258	DWT	2022-07-01	17.20	Taylor Maritime Inv	Undisclosed interests
Tanker	Kirana Sapta	2016	19,000	DWT	2022-07-01	20.00	Scorpa Pranedy	Undisclosed interests
Bulk	Lord Wellington	2005	31,921	DWT	2022-07-01	14.30	British Bulkers Inc	Chinese interests
Bulk	Mamba Point	2009	55,614	DWT	2022-07-01	20.30	D'Amico Soc di Nav	Undisclosed interests
Gas C'rier	N/B Sasaki Zosen 717	2022	7,350	cu.m.	2022-07-01	25.15	Global One (Gloen)	Clients of Jadroplov



중고선

선종	선명	건조 년도	선형	단위	매매일자	가격 (백만달러)	매도자	매수자
Bulk	Rui Fu Tai	2002	73,870	DWT	2022-07-01	14.00	Weifang Jiaquan	Undisclosed interests
Gas C'rier	Sonoma Spirit	2003	8,556	cu.m.	2022-07-01		Seapeak	Clients of LX Pantos
Bulk	Sunroad Yatsuka	2005	24,989	DWT	2022-07-01	11.00	Kyowa Sansho	Undisclosed interests



6. 주요 해운지표

(2022.07.15 기준)

주요 해운지표 추이		금주	전주 대비	7월 평균	2022년			2021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중고선가 (\$ Million)										
건화물선(5년)	Panamax	-	-	-	18.0	18.0	18.0	18.0	18.0	18.0
유조선(5년)	VLCC	82.0	0	81.30	70.0	82.0	74.4	63.0	72.0	69.1
컨테이너선(10년)	Sub-Panamax	52.0	0	52.0	52.0	56.0	54.3	14.0	44.0	32.5

자료: Clarkson

신조선가 (\$ Million)										
건화물선	Panamax	37.0	0	36.9	34.3	37.0	35.4	25.5	34.3	30.9
유조선	VLCC	118.5	0	118.3	113.0	118.5	115.8	85.0	112.0	98.7
컨테이너선	Sub-Panamax	43.0	0	43.0	40.0	43.0	41.9	30.0	40.0	35.8

자료: Clarkson

연료유 (\$/Tonne)										
380 CST	Rotterdam	461.5	-33.3	512.6	445.5	688.8	585.9	311.3	488.0	396.2
	Singapore	460.8	-40.3	520.0	456.8	773.5	609.1	324.8	523.5	416.5
	Korea	558.5	-10.8	602.6	515.5	784.5	664.2	361.8	574.5	445.9
	Hong Kong	480.0	-51.3	547.8	458.8	803.8	632.4	325.8	529.0	426.8
VLSFO	Rotterdam	785.3	-48.8	835.8	567.0	980.0	799.5	387.8	605.8	505.6
	Singapore	1002.3	-10.5	1042.1	639.5	1137.8	880.7	413.0	642.5	535.1
	Hong kong	1020.0	-63.0	1084.3	629.0	1189.3	898.8	404.5	627.3	533.2

자료: Clarkson

주요 원자재가 (\$)										
철광석 (\$/Tonne)	국제價	-	-	-	-	-	-	105.4	233.7	180.6
	중국産	145.8	-8.2	149.9	-	194.5	159.6	-	264.6	193.0
연료탄 (\$/Tonne)	국제價	132.0	-0.6	132.6	-	141.3	125.9	-	244.3	127.7
	중국産	148.3	-0.7	146.0	-	192.9	148.2	-	420.7	182.4
원료탄 (\$/Tonne)	호주산	-	-	-	-	757.5	268.0	-	501.1	272.0
	내륙(몽골)	-	-	-	-	-	-	-	-	-
	중국産	-	-	-	-	529.5	221.7	-	577.7	337.4
곡물 (센트/부셸)	대두(국제)	1466	-47	1519	1,344	1,769	1,612	1,188.5	1,642.5	1,372.4
	밀(국제)	776	-114	819	741	1,425	980	601.8	856.0	702.5

자료: mysteel, CBOT,

세계 경제권역별 교역액 (\$ Million)									
		11월	12월	1월	2022년 합계	2021년 합계	2020년 합계	2019년 합계	
ASEAN	수출	10,546	11,248	10,268	10,268	108,50	89,017	95,086	
	수입	5,745	6,556	7,180	7,180	67,703	54,830	56,186	
NAFTA	수출	9,673	10,385	10,426	10,426	11,914	87,821	89,839	
	수입	7,954	6,969	8,319	8,319	87,464	68,263	73,797	
EU	수출	5,299	5,968	5,414	5,414	63,606	47,870	52,758	
	수입	5,059	6,700	5,023	5,023	65,913	55,517	55,795	
BRICs	수출	17,988	18,160	16,049	16,049	193,174	155,346	163,882	
	수입	17,333	17,218	16,498	16,498	170,649	128,653	131,656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음
2.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한 예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개발 중인 분석모델의 예측결과로서 제공되는 내용임. 향후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하여 모델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임
3. 인공지능 분석을 포함한 본 보고서의 예측결과는 단순한 '참고용' 자료이므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이용자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 손해 또는 기타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이 자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정보 이용자는 위에 언급된 모든 책임의 한계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